

보도자료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보도일시	2012. 6. 7.(목) 16:30		
배포일시	2012. 6. 7.(목) 14:00	담당부서	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
담당과장	김금남 (2150-5150)	담당자	장현중 사무관 (2150-5152)

제목: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을 3년에 걸쳐 구축할 계획 - dBrain과 각 부처 시스템을 Network로 연계

□ (개요) 정부는 6. 7.(목),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20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

- 국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「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계획*」을 의결함

* '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('11. 9. 30. 국회 제출)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

- 동 계획은 각 부처·기관에 분산 구축되어 있는 국유재산 관련 시스템을 하나의 Network로 연계하고자 하는 것임

□ (현황) 현재 국유재산 관련 정보는 10여 개 유관 부처·기관의 20여 개 개별시스템으로 분산 구축되어 있음

- 이로 인해 업무 담당자가 부동산 등기 정보, 지적(地籍) 정보 등 국유재산 관련 각종 공부(公簿)의 확인을 위해서는 개별 시스템에 각각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,
- 국유재산 실태 조사 시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인력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
- 또한 일원화된 시스템의 부재로 국민이 국유재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, 국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원거리의 국유재산 관리 기관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애로가 있음

□ (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계획) 국유재산의 기본 사항을 단순하게 수록·관리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(dBrain)의 기능을 추가·확장하여 고도화한 후 유관기관의 국유재산 관련 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임

- 특히 항공사진 자료를 연계하여 국유재산에 특화된 지리정보시스템(GIS :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)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유재산 대부·매각·개발 등의 의사결정에 적극 활용함은 물론,
- 대국민 국유재산 포털(가칭)을 구축하여, 국민에게 국유재산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국유재산 사용허가·대부계약 연장 등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임
- 유관기관에 구축된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DB 중복을 지양하고, dBrain 운영 조직을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운영 비용의 발생을 방지하게 됨

□ (소요 기간) 올 하반기부터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여, 3년에 걸쳐 완료할 예정임

* ISP(정보화 전략 계획) 결과에 따르면 150억원 내외 소요 추산

□ (기대 효과)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국유재산 부문에 있어서도 전자 정부의 구현이 가능하게 됨

- 범정부적 국유재산 GIS 도입에 따라 현장 업무 인력이 최소화 되어 행정 비용이 절감되고,
- 국유재산 포털을 통해 국민의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제고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

※ 별첨 :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개념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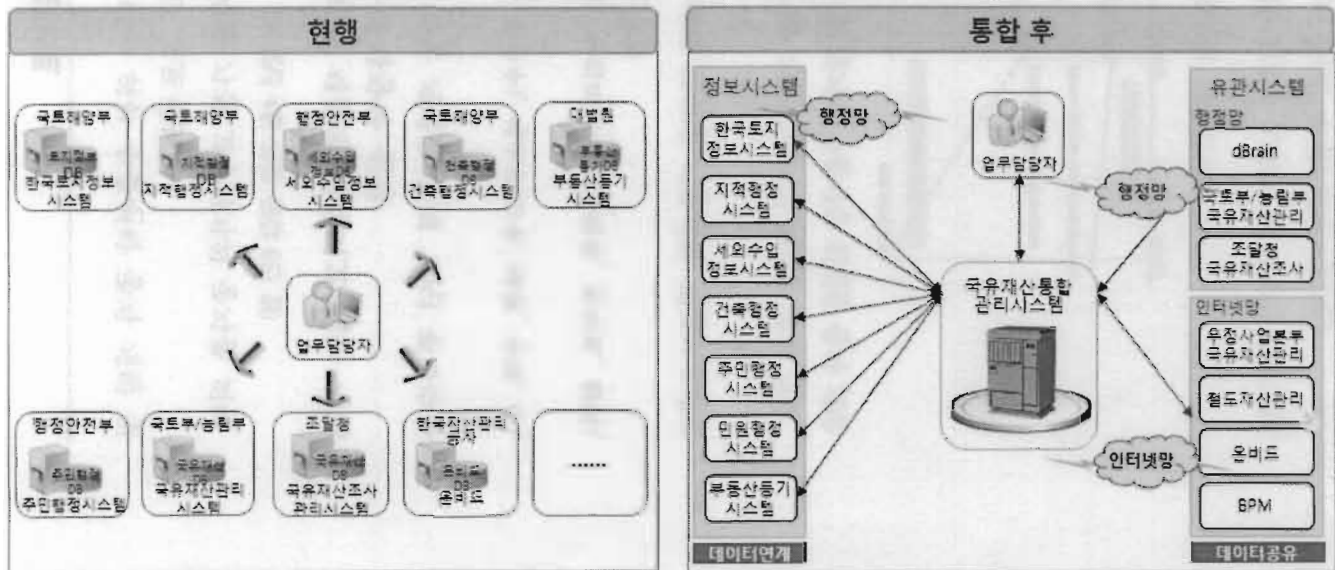


기획재정부 대변인

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개념도

◇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(dBrain)을 중심으로 각 중앙 관서 등 유관 기관의 국유재산 관련 시스템 및 DB를 연계하여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

<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변화 >



< 통합관리 시스템 개념도 >

